

보도자료

2026. 06. 15.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 전파기반본부 전자파안전정보센터 이상윤 센터장(061) 350-1601
배 포 : 경영기획본부 ESG혁신홍보팀 최근수 대리 (061) 350-132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력공사와 변전소·영유아시설 전자파 측정 현장 참여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이상훈)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와 공동으로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서울 소재 변전소 및 영유아 시설에서 ‘제9기 전자파 시민참여단’과 함께하는 전자파 측정 현장 참여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자파 측정 전문가가 시민위원들에게 측정 장비와 전자파 안전 진단 절차·방법을 설명하고, 변전소와 기지국 설치 시설, 생활환경 주변에서 실제 전자파를 측정하는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시민위원들은 최근 전자파 현안(이슈)으로 관심이 높아진 변전소와 전자파 취약계층인 영유아 시설에서 전자파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밀 측정 장비로 직접 전자파 세기를 측정하는 등 전자파 안전진단 전 과정에 참여하였다.

또한, 시민위원들은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자체 개발한 이동형 전자파 측정 차량에 탑승해 위치 기반의 전자파 안전 정보 지도를 구축하는 과정에도 동참했다. 현장에서 시민들이 제안한 서비스 개선 사항과 건의 사항은 향후 전자파 안심 서비스 개선·향상(고도화)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현장 측정에 참여한 시민위원은 “최근 변전소 주변 전자파와 영유아 시설 전자파에 대해 걱정이 많았는데 전문가 도움으로 직접 수치를

확인해 보니 인체 보호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을 알게 되어 안심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상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은 “이번 현장 참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전자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소중한 기회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보다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파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전자파안전정보센터 강지혜 과장(☎ 061-350-160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